

결핵의 날과 로버트 코흐

글 박연숙(본지기자)

3월

24일은 '세계결핵의 날'이다. 세계결핵의 날은 결핵균 발견 100주년이 되던 1982년 처음 제정되어 전세계적으로 이를 기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3월 24일(금)에 24번째 결핵의 날 행사가 거행될 예정이다.

결핵균의 발견이 인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기념일까지 만든 것일까?

세계 최초로 결핵균을 발견하여 인류에게 결핵퇴치 길을 열어준 사람은 로버트 코흐. 그가 결핵의 원인이 '결핵균'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기 전까지 결핵은 곧 죽음에 이르는 재앙과도 같은 질병이었다.

가족이나 이웃들이 눈 앞에서 피를 토하며 스러지는 데도 원인을 몰라 치료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결국 고생고생 하다가 사망하게 되는 결핵, 그 공포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치료약도 없고, 그저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이나 하며 병이 낫기를 고대하는 자연요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전염병이 세균에



세계 최초로 결핵균을 발견한 로버트 코흐.

의한 것인지 알지 못했으며, 어떤 ‘독’에 노출되어 생기는 병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로버트 코흐의 ‘세균에 의한 결핵 감염설’은 선뜻 믿기 어려운 것이었고, 당시에는 다른 학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배척당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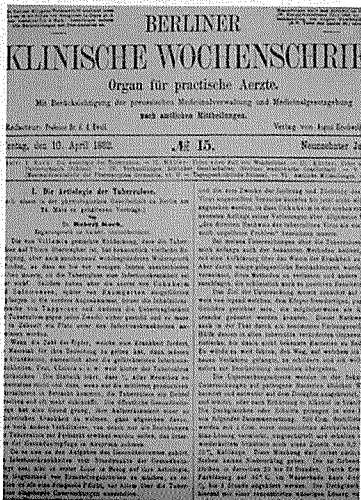
인류 역사에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로버트 코흐는 1843년 12월 11일 독일의 한 탄광촌에서 광산기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리했던 코흐는 19세 되던 1862년 괴팅겐대학의 과대학에 입학하면서 의사의 길을 걷게 된다.

결혼도 하고 개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나갔던 1870년의 어느날, 코흐는 아내인 에미로부터 현미경 한 대를 생일 선물로 받는다. 이 현미경은 후에 탄저병을 발견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연구에 몰두하면서 가정에서 소홀하게 됐고, 결국 에미와의 결혼생활이 중지부를 찍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코흐는 결핵균 발견 이전에 탄저병 연구를 통해 세균학 기법을 확립하였고, 1885년 베를린대학 위생학 교수로 임명되어 결핵균의 발견과 치료법 개발에 몰두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결핵균을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이론이 발표되어 그것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비판과 반대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런 반대와 비판에서 코흐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번은 콜레라의 세균감염설을 주장하는 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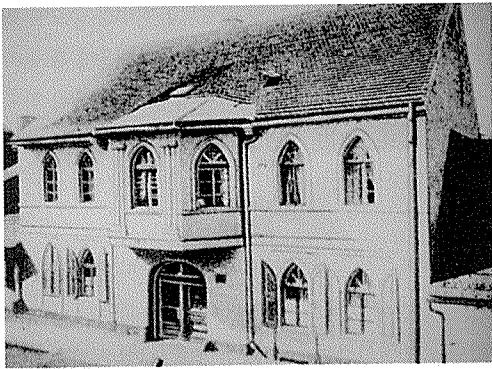
결핵균 발견 당시의 신문 기사.

호의 학설에 반대하기 위해 페텐코퍼라는 학자가 콜레라균을 마시는 사건이 발생했다. 콜레라균을 마셔도 무사한 페텐코퍼를 보자 여론은 세균감염설을 믿지 못하는 쪽으로 흐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얼마 후 그의 페텐코퍼의 제자가 똑같은 실험을 하다가 콜레라에 걸려 죽게 되면서 코흐의 세균감염설이 힘을 얻게 되었고, 지속적인 연구와 치료제의 개발로 결핵 치료는 오늘날의 궤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그 후 100년이 지났지만 결핵의 완전퇴치는 최소한 세계보건기구가 목표한 2050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50년이 지났다고 해도 완전퇴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원전 미이라에서도 결핵균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처럼 결핵균은 우리가 그것이 결핵균임을 알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감소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얼마 후면 2006년 세계결핵의 날이다. 올해는 이날이 매년 돌아오는 행사의 의미에 머물지 않고 로버트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한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 결핵퇴치를 위한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그 이유는 아직도 결핵퇴치를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 †



Wollstein에 있는 로버트 코흐의 집



코흐가 결핵균 연구를 했던 연구실.